

## 발간사

2008년 한국(남한)의 정치는 다시 한번 그 비상한 역동성을 보여주었다. 2007년 12월의 대선과 2008년 4월의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보수세력은 10년만에 다시 집권했다. 선거 결과는, 한국의 정치가 보수화로 전회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였으며, 민주주의의 확대와 진보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은 한국사회가 절차적 민주주의의 형식 속에서 보수주의로 고착되어 버리는 것은 아닌지, 진보적 혁신의 가능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다.

그런 상황에서, 새정부가 들어선지 채 3개월이 못되는 때, “촛불 항쟁”이 시작되었다. 대의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을 때,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을 때, 대중들이 거리로 나선 것이다. 수개월간 계속된 촛불 시위, 백만명의 인파를 모으기까지 했던 촛불 시위는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역동적 잠재력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다. 또한, 이 운동은, 지금까지 전개되어 온 사회운동들과는 여러 측면에서 다른 점을 보여주었다. 이 사건은 2008년 한국의 사회 정치 상황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를 점하고 있으며, 따라서, 촛불 시위라는 사건에 대한 이해는 2008년 한국의 사회와 정치 지형을 읽어내는 데에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2008년 말에 출간되는 코레아 포럼 이번 호는, 촛불 시위를 통해서 본 한국의 새로운 정치 상황을 분석하는 두 편의 글을 앞에 신는다.

과거 독재를 겪었던 사회가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는 과거청산 작업을 빼놓을 수 없다. 그간, 한국 사회는 민주화의 진전과 더불어 과거 청산 작업에 있어서도, 아직 가야할 길이 멀기는 하나,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보여왔다. 그러나, 새 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과거 청산 작업의 진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이 시점에서, 그간의 성과와 한계, 남아 있는 과제들을 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더구나, 과거 청산 문제가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정치권의 권력구도와 직결되어 있는 현재의 문제라는 점에서, 공론의 장에서 문제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오랜 기간 과거 청산 운동에 헌신해 온 두 학자, 진실 화해위원회 상임위원인 김동춘 교수와 차성환 전 부산 민주공원 관장의 글을 신는다.

사진 시리즈, “얼굴에서 얼굴로”는, 정신대의 역사를 기억하고자 기획되었다. 과거 일본군대의 성노예로 끌려가 한 많은 삶을 살아온 여성들의 사진은,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준다. 사진작가 추카사 야지마는 이 사진들을 통해 이름없는 여성들에게 그들의 이름을 돌려주고자 한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서.

북한의 상황 및 남북관계에 대한 분석은 코레아 포럼이 매호마다 비중있게 다루는 항목이다. 북한에 대한 여러가지 추측 내지는 억측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왜 북한이 붕괴하지 않는지를 분석하는 브루스 커밍스교수의 글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이번 호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북한에서 철학교수로 활동했던 현인애교수의 글로서, 자신이 가르쳤던 주체철학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현교수는 몇년 전부터 남한에서 살면서 북한학을 연구하고 있다.

남북관계 있어서도, 새 정부하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바, 지난 정부하에서의 화해정책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짚어보는 의미에서 두 글을 신는다. 지난 정부의 마지막 통일부 장관이었던 이재정 교수가 퇴임 직전 집필한, 남북관계의 진전과 평화통일의 비전에 대한 강연원고가 그 하나이다. 다른 하나는, 2007년 10월 제2차 정상회담에 노무현 대통령을 수행하여 평양을 방문했던 정현백교수의 글로서 지난 10년간 급속도로 확대된 남북간의 사회 문화교류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독일 기관들의 대북한 사업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호에서는, 한스 자이델 재단의 개발협력 사업들과 세계 기아구호 협회의 북한에서의 활동에 관한 글을 신는다.

남한에서의 정권교체를 배경으로 한국 사회의 향방에 대해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코레아 포럼 2008년호가 출간된다. 육고를 보내준 저자들에게, 또 책이 나오기까지 뒤에서 헌신적으로 수고해준 코레아 협의회 여러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

최 현덕, 요켄 힐트만